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MIDDLE EAST

중동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26~11/01

1. 리야드 공항 항공화물 처리능력 상실로 인한 중동 물류 혼란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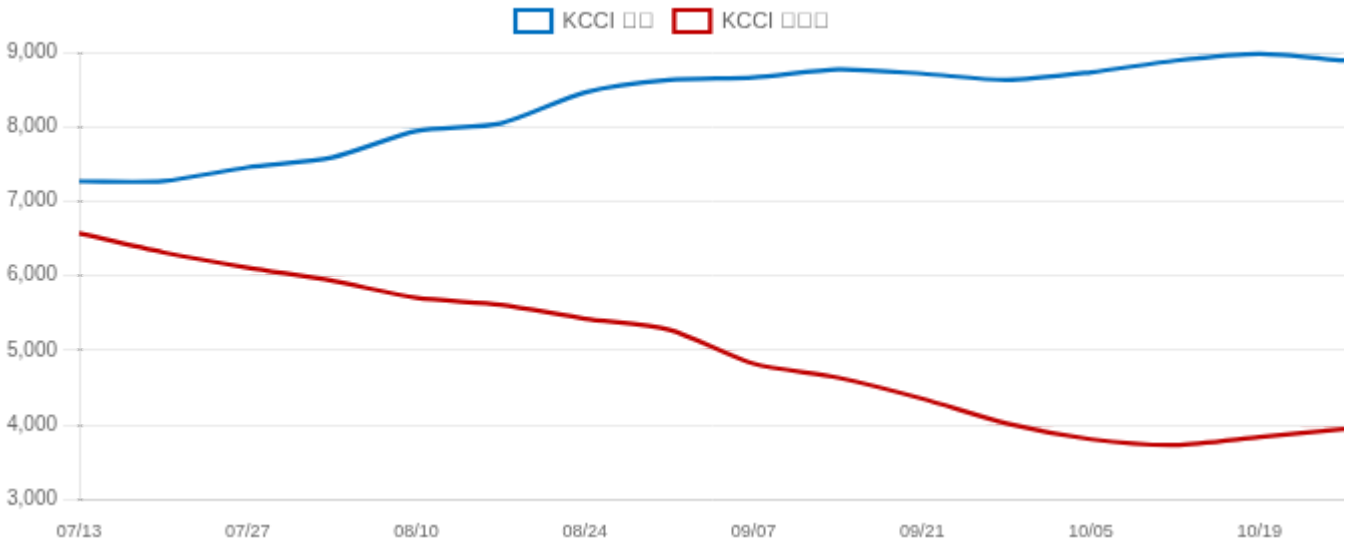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동 권역의 핵심 이슈는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능력이 정상 수준의 약 6%로 급감하면서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화물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사건으로 집약됨. 이는 글로벌 물류의 주요 허브 중 하나인 리야드의 기능 상실이 역내 무역 흐름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항공 화물 운임 상승과 화물 적체를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함.

이번 물류 혼란은 중동 지역을 경유하거나 중동산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공급 일정 지연과 재고 관리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전자상거래 및 신선식품 등 시간 민감성 화물의 경우 대체 경로 확보가 시급하며, 당분간 항공화물 운임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리야드 공항의 처리 능력 회복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중동발 물류 리스크 관리가 역내외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중동	8,887 $/FEU	10/26	-1.0%	+3.0%
KCCI 지중해	3,945 $/FEU	10/26	+2.9%	-1.8%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10/26

리야드 공항 항공화물 처리능력 상실로 인한 중동 물류 혼란

>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처리 능력이 정상 수준의 약 6%로 급감하면서 중동 및 아시아발 항공화물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RUH)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하루 약 1,500톤의 아웃바운드 항공화물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남. 항공 컨설팅업체 Aevean에 따르면 현재 공항의 화물 처리 용량은 정상 수준의 약 6%에 불과하며, 공격 이후 회복된 물량은 극히 일부에 그침. 노선별로는 홍콩행 115톤, 도하행 139톤, 두바이행 121톤, 다카행 112톤, 카이로행 98톤 등의 손실이 집계되며, 전체 손실 물량의 약 4분의 1이 걸프 지역 허브로 향하는 화물로 나타남.

이번 용량 손실은 후티 반군이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군사 표적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발생함. 공항이 폐쇄되며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했고, 공항은 일요일에 부분적으로 재개됐으나 항공 교통량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공항 재개 초기인 18일 이후 20일에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급락하며 이전 수준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함.

이번 사태는 중동 환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냄. 리야드 공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허브로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해왔으나, 단일 거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격 한 번에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음이 증명됨. 이로 인해 홍콩, 도하, 두바이, 다카, 카이로 등 주요 화물 노선의 운송이 지연되고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항공 화물 운임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임.

향후 후티 반군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사우디 경유 항공화물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업계에서는 더딘 회복을 예상하며, 대체 노선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리야드 공항의 아웃바운드 항공화물 처리 능력 손실: 하루 약 1,500톤 (정상 용량 대비 6% 수준)
- 주요 손실 노선: 홍콩 115톤/일, 도하 139톤/일, 두바이 121톤/일, 다카 112톤/일, 카이로 98톤/일
- 전체 손실 물량의 약 25%가 걸프 지역 허브(도하, 두바이)행 화물
- 공항 재개 후에도 항공 교통량은 미미하며, 일시 반등 후 다시 급락함
- 후티 반군이 공항을 군사 표적으로 지목하고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위협함

전망

단기적으로 리야드 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은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항공화물 운송의 지연과 혼잡이 지속될 전망임.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지역 항공화물 네트워크의 재편과 대체 경로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화주 — 사우디 및 중동 경유 항공화물의 운송 일정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물류 계획 조정이 필요함.

포워더 — 대체 노선 및 운송 수단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며, 운임 변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함.

항만·선사 — 항공화물의 해상운송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동 환적 수요 변화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함.

참고자료: Air Cargo Week, 리야드 공항 항공화물 하루 1500톤 손실...아시아·중동 직격탄 (검색일: 2026-11-01)